

1000만 관객 달성... 영화 '극한직업' 일상에 지친 관객에 '웃음'

해체 위기 마약반 경찰관 5인방이 범죄조직 소탕 위해 치킨집 위장창업 맛집 입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 담아 올해 개봉작 중 처음, 개봉 15일만에

영화 '극한직업'이 개봉 15일 만에 10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외화 포함 23번째, 한국 작품으로는 18번째 '천만 영화'다. 올해 개봉작 중 처음으로 1000만명 이상이 됐다. 지난해 1227만5843명을 모은 '신과함께-인파 연'(감독 김용화)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코미디 영화로는 '7번방의 선물'(감독 이완경·2013·1281만1435명) 이후 6년 만이다. 개봉 첫 날(1월23일) 36만18442명이 봤으며,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개봉 4일째 200만, 5일째 300만 관객을 넘기면서 순익분기점인 230만명을 넘어섰다. 개봉 8일째 400만, 10일째 500만, 11일째 600만, 12일째 700만, 13일째 800만, 14일째 9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파죽의 흥행가도를 달렸다.

▲박박한 삶, 웃음으로 위로받다
해체 위기의 마약반원 5인이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위장창업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영화 '스물'(2014) '바람 바람 바람'(2018) 등을 연출한 이병헌(39)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류승룡(49)·이하늬(36)·진선규(42)·이동휘(34)·공명(25) 등이 출연했다. '박박한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웃음을 안긴 것이 가장 큰 흥행성공 비결로 손꼽힌다. 치킨을 소재로 도시민의 애환을 잘 그려냈다. 광역진 영화평론가(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는 "코미디 영화는 기본적으로 웃겨야 하고 재치있고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이 감독이 코미디 장르에 독보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 잘 발휘됐다.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 호흡이 적재적소에서 웃음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배경을 보면 경제상황이 안 좋다. 그렇다보니 진지한 영화보다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다. 코미디 영화에 대한 선호와 함께 박박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작용했다."
진승현 호서대 영상미디어전공 교수는 "형사라는 극한직업과 '치킨집'이라는 소재의 선택이 좋았다"며 "형사물 하면 보통 범죄나 안 울함을 떠올리는데,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감독이 캐릭터 하나하나를 잘 살려냈고, 배우들도 환상적인 연기 호흡을 선보였다. 삶에 지친 도시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면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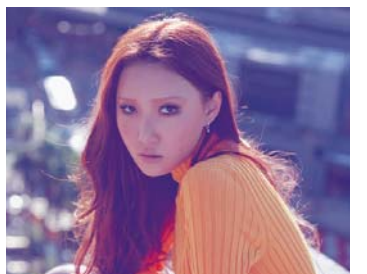
리민족을 안겼다"고 짚었다. 이 감독은 영화의 연출의도에 대해 "웃기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 감독 특유의 말맛과 코미디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배우들의 앙상블이 잘 어우러져 웃음을 줬다"며 "오랜만에 극장가를 찾은 정통 코미디에 대한 관객들의 목마름도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화 속 캐릭터들은 어수룩하고 답답하고 대책없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박박한 요즘 세대에서 극한의 생업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이 '극한직업' 주인공들의 활약상을 보며 힐링을 받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
▲설 연휴 여파·경쟁작 부진, 외부 요인들
각종 외부 요인도 흥행성공에 한 몫했다.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설 연휴에 가족 관객의 마

음을 사로잡았다. '극한직업'은 연휴기간 매일 100만명 전후의 관객을 추가, 기존의 설 연휴 최대 관객 보유작인 '검사의전'(감독 이일형·2016)의 478만9288명도 넘어섰다. 경쟁작으로 주목된 '행반'(감독 한준희)의 기세가 일찍 꺾이면서 반사이익도 얻었다. 진 교수는 "'극한직업'이 대진운도 따라왔다"며 "설 연휴 특수를 마음껏 누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영화의 부진이 계속됐는데, 간만에 한국영화계에 단비가 내린 것 같다"고 평했다. 관객들의 흥행도 흥행성패에 큰 영향을 미쳤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설 연휴에 온 가족이 보기에 안심맞춤인 영화로 입소문이 났다"며 "영화가 쉽고 선정성, 잔인함이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관객 지변이 빠르게 확장됐다. 본인이 영화를 본 후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또 봐야겠다'는 관람평이 많았다"고 전했다. '극한직업'이 대진운도 따라왔다"며 "설 연휴 특수를 마음껏 누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영화의 부진이 계속됐는데, 간만에 한국영화계에 단비가 내린 것 같다"고 평했다.



'BTS 동생그룹' TXT 내달 4일 남다른 데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동생그룹 격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신인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데뷔부터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한다. 빅히트에 따르면, TXT는 3월4일 데뷔 앨범 '꿈의 장: 스타'를 발매하고, 같은 날 오후 케이팝 음악채널 엠넷의 '데뷔 셀러 브레이크 쇼'로 데뷔한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 아닌 신인 그룹이 엠넷에서 단독 쇼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데뷔 쇼케이스는 더 드물다. TXT는 이튿날인 5일 서울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연다. TXT는 리더 수빈(19)을 비롯해 연준(20), 범규(18), 태현(17), 휴닝카이(16) 등 다섯 멤버로 구성됐다. 'TXT'에는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 함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빅히트는 "하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 함께 모인 소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밝고 건강한 아이돌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인트로덕션과 퀘스처닝 필름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61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올해 데뷔하는 신인 그룹 중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다. /뉴시스



'마마무' 화사, 솔로 활동 병행

그룹 '마마무'의 화사(24)가 데뷔 5년 만에 솔로 활동을 병행한다. 소속사 RBW에 따르면 화사는 13일 솔로 데뷔 디지털 싱글을 발표한다. 화사는 2014년 마마무 멤버들과 데뷔했다. 래퍼 로꼬(29)와 협업한 '주지마'를 비롯해 마마무 여섯 번째 미니앨범을 통해 자작곡 '덤덤해지네' 등을 선보였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솔로곡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